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

양 영 자*

차 례

1. 서언
2. 본풀이의 서사적 전개양상
3. 당신의 성격과 특징
4. 본풀이와 주민들의 생활
5. 결어

1. 서언

표선면 토산리는 개발이라는 시대적 추이 속에서도 비교적 농촌의 옛 정취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약 1,000년 전 탐라시조의 하나인 제주 부씨(夫氏)가 토산봉 서쪽에 이주하여 설촌하였다고 하는데, 고려조 충렬왕 26년(1300년) 무렵 제주도에 동서 도헌제가 실시될 당시 '절려왓'에 행정관서가 들어서면서 번성하여 설촌터가 되었다. 처음에는 토산리(土山里)라고 했다가 이 지역의 지형지세가 옥토망월(玉兔望月)이라 하여 토산리(兔山里)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¹⁾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http://altosan.invil.org>

1943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을 재편하면서 토산 1구, 토산 2구로 분리되었고, 1948년 행정리를 토산 1리, 토산 2리로 바꾼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산 2리는 약 500년 전 가시리에서 순흥 안씨가, 토산 1리에서 광산 김씨가 이주·정착하여 마을을 이뤘다.

지역주민들은 토산 1리는 옷토산, 토산 2리는 알토산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전혀 다른 마을 단위를 형성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전혀 다른 마을로 인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마을이 행정구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과 사고체계를 지배하는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옷토산은 '일췌한집'이라 하여 송당계 신을 숭앙하고 있으며, 알토산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蛇神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렛도를 숭앙하고 있다. 옷토산은 현재도 많은 단골을 거느리고 있어 정월 열나흘 신과세제 때는 전도에 흩어져 있던 단골들이 모여들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당굿이 치러지고 있는 반면, 알토산은 과거만큼 단골이 많지 않으며 신앙민 자신이 단골이라는 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문화는 그 사회나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의 산물로, 그 사회나 집단이 공유해 온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총화이다. 특히 그 마을의 민간신앙이나 무속신앙은 공동체사회의 유지와 질서를 위해 집단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 글은 박생옥 구송 알당본²⁾을 중심으로 하여 본풀이에 담긴 알토산 마을 신앙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체계의 면모들을 살펴려고 한다.

2. 본풀이의 서사적 전개양상

다른 본풀이와 마찬가지로 의례를 행하는 심방이나 굿의 차이에 따라

2)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도 여러 이본들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본풀이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의 이본들을 살펴보았다.

구송	출처
제주시 남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구좌읍 세화리 여무 조산옥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구좌읍 세화리 남무 고봉선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서귀포시 중문리 남무 강만원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구좌읍 세화리 남무 고봉선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이 중에서 다른 이본들에 비해 사건의 서사적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는 박생옥본³⁾을 대상으로 하여 본풀이에 담긴 문학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른 이본들은 전개양상을 살피는 데 참고로만 사용하였고 세세한 화소의 비교를 통한 문학적 의미의 추출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토산 알당 한집의 유래와 내용을 담은 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 1-(1) 나주영산 금성산에 신전님이 살았다.
- 1-(2) 나주목사가 부임하면 곧 죽어가니 거출이 선비가 자임하여 도입한다.
- 1-(3) 나주목사가 금성산에 이르자 하인은 토주관이 있으니 下馬하라고 한다.
- 1-(4) 가소롭게 여겨 그냥 지나가자 말발굽이 전다.
- 1-(5) 큰곳을 하니 뱀신이 나타난다.
- 1-(6) 뱀신에게 영점을 입증하는 여의주나 생금푸르초(불로초)가 있느냐고 묻는다.
- 1-(7) 없다고 하니 한집을 새 토막에 잘라 당침을 불살라 버리니 한집은 바둑에 환생한다.

- 2-(1) 환생한 한집은 서울 종로 네거리에 가 떨어진다.
- 2-(2) 때마침 진상 간 토산리 강씨 형방, 한씨 이방, 오씨 형방의 눈에 띄어 즐겁게 된다.

3) 진성기, 앞의 책

- 2-(3) 각지의 진상물이 모두 퇴짜를 맞았으나 제주의 물건은 모두 받아들이고 과분한 상까지 받는다.
- 2-(4) 바둑을 술값 대신 쓰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이들을 버린다.
- 2-(5) 고달도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바람 한 점 없어 석 달 열흘간 배를 띄우지 못한다.
- 2-(6) 문점을 하니 뱃선양에 고사를 지내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순풍에 돛을 달고 돌아오게 된다.
- 2-(7) 오는 길에 장포를 뒤지니 던져버렸던 바둑이 들어 있어 바다에 던지려니 다시 강풍이 분다.
- 2-(8) 고향에 당도하니 바둑이 월궁선녀로 변신하여 배에서 내린다.
- 2-(9) 명오부인에게 가 인사드리고 빈곳에 좌정해서 얻어먹겠다고 고한다.
- 2-(10) 토산땅만이 비었다고 하여 멧떼기르에 좌정한다.
- 2-(11) 신평리 개로육소도가 고운 행처에 반하여 한집의 손을 잡는다.
- 2-(12) 한집은 더러운 손을 잡았다고 하여 손목을 깎아 날려버린다.
- 2-(13) 요왕도에 내려 좌정하나 대접하는 이가 없었다.
- 2-(14) 한집은 개로육소도를 찾아가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신삼월달 초여드레 부부간을 삼는다.
-
- 3-(1) 토산리 강씨 형방 따님아기가 빨래 갔다가 파산된 배의 남의 나라 군졸에게 쫓긴다.
- 3-(2) 도망가다가 여덟 놈에게 윤간을 당한 따님아기가 죽는다.
- 3-(3) 한씨 이방 따님아기가 시집을 가서 방아를 찧다 급질에 걸려 어떤 약을 써도 효험이 없으니 큰곳을 하라 한다.
- 3-(4) 큰곳을 하니 시누이 혼령(강씨 형방 따님아기)이 날려들어 원을 풀어달라고 한다.
- 3-(5) 시누이 늙던 방에 보니 무명, 삼베 고비마다 구렁이가 말라죽어 있다.
- 3-(6) 神像 자리를 시키니 한집이 살아오고, 강씨 형방 따님아기는 나비로 환생하고 한씨 이방 따님아기는 신병이 좋아진다.
-
- 4-(1) 편안강씨 상단골, 한씨 중단골, 오씨 하단골 삼고 신삼월달 8일, 18일, 28일 불유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 오동짓달 3일, 13일, 23일 단골의 상을 받는다.

5-(1) 토산, 여우내, 삼서호리(동흥, 서흥, 서귀) 강씨, 한씨, 오씨 한집을 위한다.

5-(2) 토산 한집은 영급 좋고 수덕 좋고, 인심 벗이 좋아 신으로 받든다.

1-(1)에서 1-(7)은 당신의 신격을 설명하고 있다. 나주목사가 부임하자마자 곧 '소낭 녀매'가 되어 죽어갔다는 것은 민간신앙과 유교적 계급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주목사를 자임하여 도입한 거출이 선비는 신당을 지나면서 下馬하지 않고, 굶을 하여 사신의 신체를 드러내게 한 다음 마침내 칼로 베어 죽이며, 신당까지 불태우는 행위를 저지른다. 그래서 금성산 사신은 나주의 당신격을 포기하고 바둑돌로 변신하여 뱃길을 이용해 제주로 건너와 토산 알당의 당신이 된다. 그러니 토산 알당 한집은 원래 나주 금성산의 토지신이었던 蛇神이었는데 제주도에 입도하여 본향당에 좌정한 외래신이다.

사신이 바둑돌로 변하여 입도한다는 것은 옛 사람들의 영혼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뚝단배와 말로 서울까지 진상 가기란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풍량이 일든 순풍을 만나든 신의 조화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진귀한 물품의 왕래에는 신이 붙어 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아니 줌거나 훔치 주웠다가 병환이 생기면 그 탓이 아닌가 생각하는 속신은 제주도 사람들의 영혼관의 반영일 것이다.

2-(1)에서 2-(16)은 자신의 거처에서 쫓겨난 사신이 서울을 거쳐 자신의 영험한 능력과 변신술을 발휘하여 제주까지 내려와 토산 본향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담을 길게 구연하고 있다. 제주에서 진상을 위해 올라간 강씨, 한씨, 오씨가 금성산 사신의 변신인 바둑돌을 주웠을 때는 진상도 성공적이고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는 등 부를 얻었으나, 그것을 버렸을 때는 풍운조화를 일으킴으로써 할 수 없이 잘못했다는 사죄를 받아내고 고사를 지내게 한다. 결국 강씨, 한씨, 오씨는 후에 각각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이 되어 사신을 숭앙하게 된다. 이 사신은 富神이면서 단골들의 씨족신이 된다.

금성산 사신은 제주에 입도하자 여신으로 변신하여 명오부인에게 문안

을 드리고 좌정처를 문의한다. '땅도 내 땅, 물도 내 차지로 토산땅만 비었다'고 하여 문씨 영감의 안내를 받아 '멧떼기마르'로 가는데, 도중에 신평리 당신 개로육삿도가 여신을 탐하여 손목을 잡자 손목을 베어내고 멧떼기마르에 좌정한다. 이 두 신의 갈등은 유교적 도덕관과 생활풍습 사이의 마찰의 반영으로 보인다.

개로육삿도가 여신을 탐하여 손목을 잡자 손목을 베어내고 당신으로 좌정해 놓고도 누구 하나 대접해주는 이가 없자 스스로 개로육삿도를 찾아가 부부간의 관계를 맺게 됨은 매우 흥미롭다. 다른 이본들이 손목을 자르고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정결한 여성신의 모습을 하여 처녀당본풀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토산 사신은 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 미모를 이용하여 여성성을 발휘하거나 여성성을 확인시켜 주는 신은 아니었다.

이러한 모티브가 박생옥 본에만 있는 것으로 보아 신앙민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첨가된 내용일 것이나, 무엇보다도 외래신이 좌정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티브가 첨가되면서 신화의 고유한 특징인 聖性的 요소에 俗性的 요소가 결합되면서 신앙민의 사회상과 생활체계를 담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본풀이가 신성한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론 신앙민의 생활체계를 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창자의 특성이나 굿판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수록 신화는 그 고유한 특성인 신성성이 감소하고 점차 전설이나 민담으로 이행한다.

3-(1)에서 3-(6)은 신의 직능을 해설하고 있다.

신화는 승앙을 받는 방식에 의해 신의 성격을 설명한다. 그런데 토산리 사신은 처녀나 색시에게 급병을 준다. 빨래갔던 여성이 겁탈을 당하고, 방아를 찧다가 이유없이 아프고, 길을 가다가 혼령이 들어 신병을 앓는다. 여성들에게 '진 하우염 썩른 하우염 진 지지게 즈른 지지게 므른 역기 진 역기 진 툄구지 즈른 툄구지' 등 여러 흉험과 재앙을 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큰굿을 해야 하는데 많은 재물을 차려 큰굿을 하면 일시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드렛도는 재앙신으로 외경의 대상이

되어 본향당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여성의 급병은 蛇毒과 통할 듯 하며, 뱀 꿈을 꾸면 임신한다는 속신도 뱀과 여성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 신은 여성에서 여성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다. 딸에서 딸로 내려오는 이 신을 역시 조상이라 하니 이 당신도 씨족적 혈연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이본에 따라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 요드렛도가 바람을 일으키고, 왜선을 난파시키고, 오씨 아미를 강간당해 죽게 한 다음 이 처녀의 혼령이 강씨, 한씨에게 병의하여 병들게 만든다고 나오기도 하고, 개로육숫도의 부인이 재앙을 일으킨다고 나오기도 한다.

4-(1)은 제일을 해설하고 있다. 알당 한집 사신은 3월 8일, 18일, 28일과 6월 8일, 18일, 28일, 11월 3일, 13일, 23일에 상을 받는다. 이 신이 요드렛도인 것으로 보아 11월 3일, 13일, 23은 11월 8일, 18일, 28일의 誤誦일 것이다.

웃토산 일땀한집 본향을 맨 김순이(여·73 /2004. 1. 31 조사)에 의하면 웃토산 단골들이 현재도 유월 8일, 18일, 28일과 동짓달 8일, 18일, 28일에 알토산 본향당에 와서 앉은곳으로 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이는 알당 한집이 영험이 좋고 위력이 세다는 신앙민의 심의현상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5-(1)에서 5-(2)는 입도한 외래신이 강씨, 한씨, 오씨 집안의 씨족 수호신이 되었다가 본향당신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강씨, 한씨, 오씨를 각각 상·중·하단골로 삼고, 인근의 다른 부락들이 이들을 가지 갈라 모시는 경우를 약속하였다. 거기다 영험 있고, 수덕 좋으며, 인심과 벼이 좋아 당신으로 모신다는 신앙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다.

본풀이는 신화의 호칭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계보, 출생지, 좌정 유래, 줄거리 등 신화의 잠재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체계화되어 운율 형태로 조형 표현된다. 완전한 본풀이가 되려면 (1) 신격 해설 (2) 좌정유래 해설 (3) 직능 해설 (4) 제일 해설 (5) 단골 해설 (6) 기도사 등 여섯 개의 기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여섯 개의 기본요소를 갖춘 것을 당신화의 기본형이라 한다."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는 이러한 당신화의 기본형

4) 현용준, 『문헌신화와 무속신화』, 집문당, 1992.

에서 (6) 기도사 부분만이 생략되어 있다.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모티브로 요약할 수 있다.

- I. 금성산 뱀신의 영험성 (蛇身→바둑돌→人身 변신)(1-(1)~2-(8))
- II. 좌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2-(9)~2-(14))
- III. 당신으로서 신앙되는 과정(3-(1)~5-(2))

본풀이의 전체적인 양상은 '신이한 탄생-고난과 극복의 과정-당신으로 좌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I은 당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인 영험성을 통해 신의 내력을 풀어가는 것으로 聖性的 요소를 갖고 있다. II는 이미 신으로 좌정했지만 얻어먹지 못함으로써 남신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 俗性的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은 신앙민들에게 추앙받는 과정을 통해 다시 여신의 조화와 영험을 드러내면서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고 있어 聖性的+俗性的 요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간의 삶 속에 두 가지 존재방식이 늘 공존하며 역사적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박생옥본 알당 본풀이가 이를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는 알토산 마을의 문화수용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다룬 박생옥본은 성성적 요소와 속성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신화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신앙민의 생활체계를 담아내는 데 더욱 치중한 신화라 할 수 있다.

3. 당신의 성격과 특징

1957년 채록된 고봉선의 알당 본풀이⁵⁾는 '저 토산은 한집님이 알로 나

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려 유향하늘 우으로 느려 당토하늘 새로 셋편 신임 심중 신임 신당수 올 십내다'로 시작하고 있다. 즉, 토산 알당 당신은 '토산 한집님'이다.

그런데 이 당신은 토산 한집님 외에도 '요드레한집, 요드렛도, 요드레할 망, 토산한집, 토산당귀신, 알당할망, 알당한집, 아기씨'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한집, 도, 귀신, 할망, 아기씨' 등의 호칭은 당신이 인격화된 신으로 모셔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할망은 무속 사회 특유의 여성 신격에 대한 호칭이니 신앙민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관장해주는 신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이처럼 여러 가지로 호칭되는 데는 여러 계층의 신앙민에 의해 복잡 다양하게 속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⁶⁾

토산 알당 한집님은 사신 숭배니 뱀 토템이니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신의 거처로서 두드러진 신당의 형태는 대개 요드렛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암석이나 수목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속칭 '괴'라는 구멍이며 그 신체는 신당의 암석과 수목, 그밖의 신의로써 상징되는데, 토산 알당 한집 역시 요드렛당으로 토산개 한 귀퉁이에 본향을 두고 암석과 보리수나무에 신체를 모시고 있다.

토산리 알당 사신은 원래 나주 금성산에서 처녀 공화를 받던 토지신이 었다. 그런데 나주 목사의 죽임을 받아 바둑으로 변하여 서울 종로에 가 있다가 제주에서 진상 바치러 간 강씨 형방, 한씨 이방, 오씨 형방에게 의탁하여 제주에 들어와 토산 멧떼기마르(메뚜기모루)에 좌정하여 당신이 되었다.

나주는 벼농사의 곡창으로 넓은 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호하고 관장하는 신을 커다란 신당을 지어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본풀이의 주인공인 토산 당신이 나주 출신의 富神임을 나타낸다는 견해⁷⁾가 설득력을 얻게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富가 신화의 주제

6) 필자는 2004. 1.31일 조사시 만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던 '알당 한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집단에서 '한집, 도, 귀신, 할망' 등을 각각 사용하여 왔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다.

7)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도사연구』제11집 별쇄, 제주도사연구회, 2002

로 다루어지고 있음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제주에서 진상 간강씨 일행이 사신의 변신인 바둑을 줍자 진상도 순조롭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본풀이의 주인공 신이 부신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에서 쌀 생산이 드물어 나주와 같은 육지의 곡창지대에서 쌀을 들여와야 했을 터이므로 곡창지대인 나주 지역에서 외래신이 입도하였다는 것은 신의 입도와 함께 쌀 문화가 유입되었음을 말한다. 곧, 신의 이동 경로는 문물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풀이에 나타나는 토산 사신과 개로육솟도의 갈등을 통해서도 사신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신평리 개로육솟도는 수렵과 어로의 신이며 돈육식성의 부정한 신인데, 금성산에서 온 사신은 토산에 와서 마을 토지관인 米食의 농경신이 되고자 한 때문에 두 신은 갈등하게 된다. 당굿을 할 때 뱀의 형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사신이 가장 좋아하는 쌀과 삶은 계란을 놓아 종이에 싸서 바다에 띄워보내는 것은 사신이 미식신이며 곡신, 농경신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⁸⁾

그런데 농경신격의 변모는 해신 혹은 농경신에서 치병신으로 바뀌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의 면모가 농경신으로 제시된 것은 치병신으로 제시된 것보다 고풍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농경신인 여성신은 수렵신인 남성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나, 치병신인 여성신은 수렵신인 남성신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여성신의 우월함이 약화되는 변모를 보이는 셈이다.⁹⁾ 알토산 사신은 나주 금성산의 토지신으로서 농경신이었으나 토산에 들어오면서 치병신으로 바뀌며 그 우월성을 상실하고 개로육솟도의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무속사회에서 사신은 혐오하면서도 모셔서 달래야 하는 신앙·승배의 대상이다.

8)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9)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제주에서 뱀이 신으로서 숭앙되는 경우는 '칠성'이라 하여 모시는 경우와 토산의 '요드렛도'로 관념되는 경우이다.

칠성은 잘 위하면 부자가 되고 아니 위하면 흉재가 닥친다고 한다. 칠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뱀과 같이 혀를 날름거리고 뱀의 비늘처럼 피부에 기미가 지고 뱀이 얻어맞은 곳에 해당되는 인체의 부위가 아프다고 한다. 이는 類感呪術的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칠성새남'이라는 굿을 하여 그 뱀을 살려내면 치료된다고 한다. 이 칠성신을 잘 모시는 가정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영험담들이 전해져 왔고, 이 당의 계통을 이어온 집안에서는 뒤뜰 같은 데 조그만 주렁이나 기왓장 따위로 굴속 모양의 사신의 집을 만들어 '칠성눌' '뒗할망' '뒗칩할망'이라 하여 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토산리의 사신은 바둑돌이 되었다가 배에서 내릴 때는 월궁선녀(미모의 처녀)의 모습으로 화해서 입도하고 그 미모에 반한 개로육속도가 손목을 잡게 만든다. 그리고 개로육속도가 잡은 손목을 잘라냈다가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빌고 부부간을 삼는다. 토산 사신은 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 미모를 이용하여 여성성을 발휘하거나 여성성을 확인시켜 주는 신은 아니었고, 지극히 현실적인 여성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토산 당신으로 좌정한 사신은 갖가지 조화와 흥협을 주어 인간으로부터 숭앙을 받는다. 빨래 간 처녀가 겁탈을 당하여 맺힌 원한, 유월 방아를 찼는 처녀에게 급질을 주어 '진 하우염, 존 하우염, 진 지지계, 존 지지계, 다른 역기, 진 톨고지, 즈른 톨고지'를 하게 하고 땡굴거나 꼬부라지게 한다. 이러한 급병은 큰굿을 치뤄 받은 후에야 병을 거두어 준다. 곧, 조화를 부려 처녀들을 병들게 하고 큰굿을 하게 하여 그 사제를 받아먹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당신은 여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어디를 가나 그 당신을 잘 위하지 않을 때는 악화를 준다고 믿어졌다. 신앙이 약화되었을 때 당신의 보복으로 병을 얻고 신의 재앙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따랐다.

토산 알당 한집은 재앙신의 성격과 치병신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병 주고 약 주는 이중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치병신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칠성신은 피부병의 치병신이고, 토산리 사신은 홀연 광증을 불러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증세와 같이 심리적·내면적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신이다. 환자의 몸에 병의하여 병을 일으키므로 신경정신과적 병을 고쳐주는 신이다. 그러므로 사신이 들린 병은 ‘방울뿔’을 하여 환자의 몸 속에 맺혀 있는 한의 응어리인 방울을 풀어냄으로써 건강한 삶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마흔 요덥 상방울, 설은요덥 중방울, 쑤물요덥 하방울 마차놓고 나 가슴을 풀려도라’고 애원한다.

사신 신앙은 도깨비와 함께 정신치료의 巫醫信仰으로 당신앙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¹⁰⁾

4. 본풀이와 주민들의 생활

당신이 어떻게 마을을 설촌하고 마을의 토주관이 되어 당에 좌정하였으며, 인간은 왜 제일을 통해 당신을 모시게 되었는가를 풀이하는 신화가 ‘당본풀이’이다. 당본풀이는 신의 좌정 경위를 설명하는 신의 내력담이라는 점에서 신화이지만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역사이며, 당과 당신, 당본풀이와 당국의 상관관계를 해설하는 동시에 마을 집단의 신앙체계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의례의 근본이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는 토산 알당 한집 당신의 내력을 그린 신화이면서 동시에 알토산 마을 신앙민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담당해 온 사회규범이자 체계로 인식할 수 있다.

현재의 토산은 웃토산, 알토산으로 행정구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10) 문무병, 앞의 논문

11) 문무병, 앞의 논문

신앙의 대상이 현격히 다르다. 옷토산은 '일뤼한집'이라 하여 송당계 신을 숭앙하고 있으며, 알토산은 사신인 여드렛도를 숭앙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설계가 신들의 관장지역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촌락의 지역적 공간보다 그 주민과 주민들의 삶의 방식, 생활체계가 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산 지역 주민들이 신당을 가리킬 때는 알토산 당, 옷토산 당이라 하지 않고 여전히 토산 알당(알당 한집), 토산 옷당(일뤼한집)이다. 이는 토산이 하나의 신앙권이며, 생활권이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알토산과 옷토산은 서로 사돈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원래 같은 동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¹²⁾ 마을 역사로 볼 때도 알토산은 옷토산의 광산 김씨가 이주하여 설촌하였다는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던 토산 사람들이 옷마을에서 아랫마을로 이주하면서 당을 가지 갈라 모셨다고 볼 수 있다.

즉,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는 선주민들이 새로이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하고 설촌하여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각 씨족이 마을을 이루어 그 마을의 공동체적 구성원이 되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이끌어 갈 중심으로서 본풀이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외래인이 들어오면 촌락은 주 씨족에 몇 개의 소수 씨족이 결합된 촌락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이쯤되면 씨족신의 성격만으로는 다른 씨족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각 씨족의 共同祖神으로 공동촌락의 수호신으로 변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씨족신이 촌락신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단골들이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아닌 가 한다.¹³⁾

이들 단골의 지정은 신이 그 마을을 차지하려고 처음 좌정하였을 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상단골은 그 신을 처음으로 모시기 시작한 성씨가 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

12) 2004. 2. 19 알토산 노인회장 김성현 구술

13) 현용준, 앞의 책

다. 당굿 참여를 통하여 자신이 어느 단골에 소속되었는가를 체험하고 부락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골들 사이, 나아가 주민들 사이의 결속과 단합이 한층 공고하게 된다. 매해 당굿에서 듣는 본풀이는 단골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쳐 마을과 마을간의 행동양식을 규제하게 된다.

알당 본풀이에는 강씨, 한씨, 오씨가 각각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알토산에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이며, 다음으로 안씨가 많다. 토산1리에서 광산 김씨가, 가시리에서 안씨가 이주하여 설촌하였다는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제주군誌』(남제주군, 1986)에 의하면 표선면에는 2,701가구에 72개 성씨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康씨가 2,458명, 姜씨가 122명으로 김씨 2,899명 다음으로 많다. 그리고 오씨는 728명, 한씨는 180명으로 나와 있다. 강씨, 한씨, 오씨는 표선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던 성씨들이 관용적으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 중단골과 하단골은 한씨와 오씨가 서로 바뀌기도 하나 상단골 만큼은 늘 강씨인 걸로 보아 강씨가 단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무병은 제주도의 八日堂 신앙은 조선 중기 천미포 왜침(1552년) 이후의 일로 보았다.¹⁴⁾ 그 이전의 蛇神信仰은 七日堂을 중심으로 전도에 분포된 해촌 마을의 농경신앙과 七星信仰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토산리 처녀가 왜구에 강간당하여 죽은 역사적 사건을 치룬 이후 토산당 신화에 이 역사적 사건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토산 알당 본풀이는 옷토산 일뤼한집의 칠일당 본풀이를 수용하여 변이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산 옷당에서 가지 갈라 모시면서 외래신인 사신이 당신으로 좌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풀이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변이를 겪게 되었다고 볼 때, 그 변이과정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14) 문무병, 앞의 논문.

당본풀이인 신화는 전통적인 사회의 집단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현실적 체험을 망라한다. 그것은 주술적이며 종교적 신앙이며, 풍속, 관습이며 생활양식이기도 하다.¹⁵⁾ 인간생활의 투영이니 만큼 사회관계의 조직과 혈연관계의 조직이 투영되며, 신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인격성을 투입받는다. 그러나 신화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현실세계의 생활체험의 투입, 즉 생활체험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토산리 사신이 입도하여 좌정지인 토산으로 가는 도중 신평리 남신인 개로육속도가 뒤쫓아 팔목을 붙잡히니 자기 팔목을 싹싹 깎아 넘겼다가도 결국엔 혼인하는 것을 놓고 절부 전설이 결부된 약탈혼적 혼인방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⁶⁾ 제주도의 節婦傳說들은 남성에게 팔목을 잡히기만 하면 그 붙잡혔던 팔목을 깎아버리는데 성산면 신평리에서 표선면 토산리까지의 장거리를 달아나고 붙잡고 해서 부부가 맺어지는 것을 약탈적 혼인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정서화는 터무니없는 부부신의 상정이 아니라 근처에 남녀 신당이 각각 대등한 지위의 것이 있어서 이 양자를 혼인 정서화시킨다. 남녀신의 만남은 본래 신앙적, 신화적인 의미를 지니던 것이지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예가 많고 후대에는 남성신이 여성신의 미모에 반해서 구애를 하고 혼인을 한다고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별거로 귀결되는 사례도 흔하다.

본풀이에 나타난 부부신의 갈등은 이야기의 흥미를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실생활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를 통하여 신앙의 규범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마을과 마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갈등 양상과 신들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마을과 마을의 친소관계나 문화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15) 왕빈,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16) 현용준, 앞의 책

박생육의 알당본은 여신이 먼저 남신에게 가서 사과하여 부부의 연을 맺는 것으로 나와 있어 여성신이 남성신에게 약탈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현실주의적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

토산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남녀신의 결합은 당시의 신앙, 사회, 경제 생활의 현실적 사실이 신화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혼자 살아가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적극성이 본풀이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옛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완전함을 갖추기 위해 혼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모색의 한 방편이었다.

특히 토산 사신은 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 미모를 이용하여 여성성을 발휘하거나 여성성을 확인시켜 주는 신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주여성인 것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토산리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토산 사신이 은평리 포구를 통하여 입도하여 은평리 명오부인에게 좌정처를 물어 토산리로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씨 영감의 안내를 받으며, 또한 개로육속도와 혼인하여 좌정하는 것은 토산 사람들이 인근의 성산읍 은평리에 크게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신평리와 아주 가까운 생활권을 이루었음을 말한다. 신의 이동경로가 문화의 이동경로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화가 사회습속을 모태로 형성되었고 또한 신화에 그 사회습속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들의 갈등양상을 더욱 자세히 살핀다면 마을과 마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신 숭배는 제주도 민간신앙의 여러 유형 가운데서 기원이 오래고 도민의 생활에 밀착되어 온 신앙형태이다. 『제주풍토록』, 『남사록』, 『탐라지』, 『탐라기년』 등의 여러 기록에 제주도에는 예로부터 뱀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나 뱀신이 그만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기록들이 보인다.¹⁷⁾

17) 진성기,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66.

금성산의 신당 앞을 지날 때 목사가 하마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가 말발이 절므로 군병을 시켜 불살랐다는 것은 김녕 사굴의 처녀 공회를 받는 大蛇를 불사른 서린 판관 이야기나 이형상 목사가 대정 광정당 앞을 지나다 말발이 저니 사신을 불살랐다는 이야기 등에 혼한 모티브이다.

제주도의 당신앙 중에서 도깨비 신앙, 영감신앙과 더불어 사신신앙도 결혼을 꺼릴 만큼 혼속이나 통혼권에 영향을 주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사신 신앙 가운데도 토산리 사신 신앙은 한 지역 전체의 세습적이요 숙명적인 신앙이라는 데서 동서고금을 찾아봐도 다시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¹⁸⁾ 이 당신은 그 단골의 딸에서 딸로 따라오는 女系世襲의 신앙형태로 이 신을 숭앙하다 중단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널리 이야기된다. 딸에서 딸로 내려오는 이 신을 역시 조상이라 하니 이 당신도 씨족적 혈연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결혼하면서 여자가 숭앙을 중지하면 신은 그 여성에게 재해를 주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재해나 질병을 주어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속설 때문에 현재까지도 토산 출신의 여성들은 배웠다든 사람들에게 게서마저도 자신이 사신을 모시는 집안의 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전히 신화적 사고가 현실의 인식과 해석에 참여하고 있고, 최첨단의 시대인 현대사회도 신화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의 충돌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화는 망각 되었어도 인간의 근원적인 신화적 사고가 소멸되지 않고 역사와 시간의 중압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살아남아 인간의 본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녕리나 함덕리에 비해 토산리는 사신 신앙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많았다. 특히 토산 알당 주민들은 당신이 사신이며 세습된다는 외부로부터의 왜곡된 시선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정당화 해온 본풀이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순을 놓았다.

18) 진성기, 앞의 책.

5. 결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회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의 목적은 그 당시의 사회상태보다는 오히려 그 이야기가 전승 되는 환경을 이루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¹⁹⁾

문화는 그 사회집단의 생활방식, 종교, 언어, 신앙, 경제생활, 노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 만들어낸다. 토산 당본풀이는 주민들의 의식과 삶의 기반을 형성해 왔으며 다양한 문화수용과정과 신앙민의 생활체계·토산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한때 토산 알당은 미신타파라는 이름으로 없어졌다가 신앙민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터를 옮기기도 하면서 근근히 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급격한 단골의 감소와 터부시하는 풍토로 인해 단골들에게서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그와 함께 토산 사람들의 역사가 담긴 본풀이도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알토산 주민들에게 본풀이를 살아 있는 역사로 되돌려주는 일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11집 별쇄, 제주도사연구회, 2002
- 김선풍 외 공저, 『민속학적으로 본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1995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진성기,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66

19) 大林太郎,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大林太郎,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5
王彬,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赤松智城·秋葉 隆,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赤松智城·秋葉 隆, 『조선무속의 연구 下』, 동문선, 1991